

9평 및 수능 대비 EBS 수능 완성 필수 확인

1. 개념 부분

\* 보는 법 : 숫자(쪽수)-Zola Guide

- 4-자료와 친해지기-지식화 시킬 필요까진 없으나 눈팅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제시문임.
  - 5-내용 부분 중에서-성찰의 윤리적 실천-'신독-주일무적-거경-함양-제찰'의 의미 확인. 한자어 실력이 약한 수험생은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음.
  - 5-자료와 친해지기-밀의 자유론, 지금까지 2번 나왔음. 기출 확인. 수특에도 있음.
  - 12-자료와 친해지기-배려윤리인데, 책임윤리(요나스)나 담론윤리(하버마스)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음. 각자 확인해 둘 것. 그리고 덕윤리-배려윤리-책임윤리는 핵심어가 서로 공유되기 때문에 제시문을 끝까지 잘 보길 바람.
  - 21-자료와 친해지기-서양 죽음관은 플라톤과 에피쿠로스, 실존주의(야스퍼스, 하이데거)가 다루어짐. 아직까지 실존주의가 나오지 않았음. 25쪽 4번 확인!
  - 22-자료와 친해지기-자연법 윤리로 알아둘 것. 아퀴나스 은근 인기임.
  - 37-자료와 친해지기-프롬 살짝 통수 가능한(정답률 60~70% 내외?) 부분 있으니 조심. 기출 제시문도 잘 확인!
  - 45-자료와 친해지기-독해형 출제 가능. 아리스토텔레스 우애론 출제되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를 알고 지식으로 푼 친구들 중에 틀린 친구들 많았음(17-9평-3번-㉔). 지식의 활용법을 모르면 망(亡)함! 그리고 지식보다 눈 앞에 있는 제시문이 우선임.
  - 59-자료와 친해지기-처음 등장하는 내용. 제시문을 보고 생명 중심주의(테일러)임을 독해낼 수 있어야 함.
  - 60-자료와 친해지기-수특에서도 언급했듯이 생명중심주의 제시문으로 오해하기 딱 쉬움.
- [참고] <https://orbi.kr/00017304774>
- 61-자료와 친해지기-노턴이라는 사람의 분류법임.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제시문에서 안내하는 대로 풀면 됨. 참고로 수완 자료는 교과서 자료 따온 것임.
  - 77-자료와 친해지기-이전 ebs 자료 재탕한 것이지만 킬러 가능한 선지를 담고 있는 제시문임. 문장 하나 하나를 잘 봐둘 것.
  - 78-자료와 친해지기-16-9평-13번 선지 ㉔에 대한 '학문적·사실적' 해설임. 일단 이 제시문은 교육과정 이탈이지만 평가원에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교육과정 이탈이라고 무시할 수가 없음.

- 88-자료와 친해지기-롤스의 시민 불복종. 알아두면 좋음.
- 96-자료와 친해지기-공직자의 자세일 뿐만 아니라 의식주 윤리라고도 관련됨.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유학 사상임.
- 111-자료와 친해지기-싱어의 동물 중심주의임.
- 112-자료와 친해지기-한 번쯤 나올 때가 된 것 같은 주제(제시문)임. 물론 독해형일 가능성 높음. 경제하는 친구들은 그냥 넘어가도 됨.
- 119-자료와 친해지기-제시문 잘 읽어봐. 싱어는 해외원조를 개인 '만' 하는 거니? 'OO이다'와 'OO을 강조하다'는 다른 의미임! What are you?

2. 문제 부분

\* 보는 법 : 숫자(쪽수)-숫자(번호)-Zola Guide

- 7-2+10-7-쪽 이 문제가 아니어도 세 개 비교할 때 기준에 따라 여러 조합이 가능함. 그러니 주어진 제시문이나 선지의 조건들을 잘 확인하길 바람.
- 15-2+26-6-자연법 확인해 두자.
- 17-6-갑 제시문. 단독으로 나와도 벤담인 것을 알 수 있어야 함.
- 19-9-해외원조 및 환경윤리에 활용 가능함. 사실 모든 윤리는 해외원조 및 환경윤리 주제에 활용 가능함.
- 25-4-하이데거의 죽음관. 서양 죽음관은 플라톤과 에피쿠로스, 실존주의(야스퍼스, 하이데거)가 다루어 지는데, 아직까지 실존주의가 나오지 않았음.
- 26-5-에피쿠로스와 도가 사상 헷갈리지 말고. 불교가 요즘 뜸하니(?) 조심해 둘 것.
- 34-6-요나스-수완 해설 참고해서 요나스'만' 따로 모아서 선지 잘 확인해 둘 것. 요나스는 친구들끼리 OX 해 보길 권함.
- 42-5-기출 문제 보면 밀의 남녀 평등 문제가 있음. 독해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풀어볼 것.
- 43-8-사랑이라는 주제도 가끔 나옴. 정답률 60%까지 내려가기도 함.
- 47-1-(가)/(나) 제시문+49-5-제시문+50-7-제시문 확인할 것. 교과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에 나오는 한자어들 확인할 것. 혼례(결혼)는 오르조드스이다! 뭐냐?
- 51-10-칸트임. 의무론의 입장에서 제시문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.
- 56-4-요나스. 수특·수완에 킬러 선지들이 있는 요나스 문제들이 있음. 선지 ㉔ 확인. 제시문 마지막 문장의 의미 주의.\

62~68-환경윤리는 다 풀어볼 것. 단, 개념 공부(사상가 말고 개념!!)를 확실하게 하고 풀어볼 것. 제시문 독해 연습할 것! 혹시 환경 윤리 관련 교과서 자료들이 없다면 아래 참고에 들어가서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 볼 것.

[참고] <https://orbi.kr/00017266908>

71~76-정보윤리는 99% 독해임.

81-2-아리스토텔레스. 니부어만 있는 것 아님!

82-3+4-롤스. 제시문이 교과서 수준을 넘어서고 있지만 기본 개념과 함께 독해로 해결됨. 그리고 기출이 중요함. 보통 새로운 문제라도 기출과 연결되는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.

83-6-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 정의는 거의 내신 같게 나옴.

85-9-86-12-교정 정의(형벌, 사형)는 기출 베낀 정도임.

90-1+2-인권 3세대론. 작년에 처음 등장함. 문제가 거의 없음. 자주 나올만한 주제는 아니나 지식은 필요함.

91-3-제시문이 자연권을 비판하는 제시문임. 쟁점형(비판형)으로 출제될 수도 있음. 단 쟁점형이나 비판형은 기본적으로 독해임!

91-4-준법+시민불복종 연합형으로 출제 가능함.

93-8-'관점' 잘 봐둘 것. 말만 살짝 바꾸든지 문제 유형만 달리해도 여러분들 낚을 수 있음.

94-10-저항권과 시민불복종의 관계. 저항권이 뭔지 모르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음. 준법+시민불복종+저항권으로 나올 수도 있음.

98-2-갑-독해로 풀림. 병(마르크스)는 지식 있는 것이 좋음.

109-7-엘리아데의 성현. 잘 안 틀리지만 의외로 현장에서 물어보면 잘못된 지식 가진 분들 많음. 기출 다시 한 번 살펴봅시다...

114-2+115-4-다문화. 6평에 나왔음. 만약 9평에 안 나온다면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질 것 같음. 단, 독해로 풀리니까 너무 세세하게 지식화할 필요 없음(오히려 독이 됨).

123-3+127-12-갈통의 평화론. 갈통이랑 엮일 수 있는 사상가가 다양함. 칸트와는 엮어서 나왔고(기출), 니부어와도 엮일 수 있고 롤스와도 엮일 수 있음. 그러면 당연히 니부어나 롤스와 엮일 수 있는 다른 사상가와도 엮일 수 있음. 엮일 때는 제시문에서 어떤 부분을 문제 삼는지 잘 확인해 둘 것.

125-7+127-11-해리원조는 기출(선지+제시문)을 한 번 살펴볼 것.

126-9-칸트의 영구 평화론. 확정조항 3개는 암기. 예비조항 6개는 눈팅 자주해 둘 것.

128-3-자료 유형 조심. D는 모두 부정을 하는 입장임. 자료에 약하신 분은 zola cival mini 모의고사(오르비, 수만휘, 수겔 공개) 다운받아보셈. 신기한 유형 2개가 있을 것임.

130-11-L-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선지임.

132-20-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레건의 논거(이유)와 싱어의 논거가 다름. 조심해야 함.

134-8-요나스임. 선지 ㉔ 확인해 둘 것.

135-9-갑 제시문 확인.

136-13-제시문 보고 노직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비교하다니 하고 은근 기대했다가 선지 보고 실망함. 답이 너무 뻔해서. 평가원이면 더 좋은 선지를 만들어 낼 듯. 참고로 ㉔를 부정하면 그건 윤리가 아니지 않을까?

136-14-선지 ㉕. 둘의 차이 알겠니?!

140-11-을(테일러) 제시문. 자연에 대한 존중이라고 해서 생태 중심주의라고 하면 안 됨. 제시문을 끝까지 읽어봐(독해)! 뒷부분이 '궁극적으로' 살라 살라임. 그러면 어디가 핵심이겠니?!

141-15-을 제시문. 드워킨 드디어 출제됨. but 어렵지 않음. 시민 불복종 롤스 빼면 의외로 할 것 없음. 소로는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두는 것이 좋음. 남은 것은 싱어임. 드워킨보다 싱어가 롤스와 엮일 여지가 많음.(싱어가 롤스 시민불복종에 빠졌음.)

143-1-1번 문제가 윤리학의 구분 문제가 아님.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? 없음!! **생윤 문제 '형식'에 대해 고정 관념(편견) 가지고 있지 마셈. 고정 관념이 많을수록 수능 시험장에서의 돌발 변수에 멘탈 깨질 가능성이 높아짐!!**

143-2-덕윤리 안에서 매킨타이어와 아리스토텔레스가 함께 나온 문제는 아직 출제된 적이 없다. 생윤도 기출'만'으로 부족할 수 있음에 조심해야 함. 기출 역사가 짧기 때문임. Zola가 이 작업을 하는 이유이기도 함.

zola cival mini 모의고사 공개해 놓은 것이 있으니 참고해 볼 것. 어려운 문제들이긴 하지만 점수보다는 내용 자체가 중요하니 참고해 보면 도움되는 것을 최소한 하나는 건질 수 있을 것임.

[참고] <https://orbi.kr/00018161215>

148-3-요나스. 선지 ① 주의. 선지 ⑤는 호혜성과 연대성 구분해야 함. 수특에서 조심하라고 언급했음. 수특 정리해 준 프린트 확인 할 것. 134쪽 8번 선지 ㉔가 연대성에 대한 내용임!

☛ Zola Guide

(1)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들은 수완 뒤에 해설을 보면서 문제 목록을 만드세요. 그리고 나서 문제 목록들을 보면서 주욱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

(2-1) '약한' 이유는 대부분 개념 공부가 제대로 안 되어서입니다. 개념 공부가 제대로 되었다 안 되었다는 판단을 저는 '백지복습'으로 합니다. 연습장 하나 꺼내세요. 그래서 주제 또는 사상가 하나 잡아서 아는 것을 써 보세요. 최대한 ① 많이, ② 논리적으로, ③ (교강사의 수업을 듣는다면) 쌤이 해주시는 강의 필기처럼! 특히 ③의 경우 쌤이 했던 얘기들도 함께 떠올려보면서 마치 쌤의 수업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효과 좋음. 그래서 인강 1.3배속 이런 식으로 들으면 오히려 득이 됨.

(2-2) 그렇게 해서 70~80% 이상 일치해야 함!

<필수 암기 목록>

생활과 윤리 주제(개념) 중에서 **지식이 필요한** 목록입니다.

(물론 때에 따라서는 독해형으로 출제되기도 합니다.)

9평 뿐만 아니라 수능 공부 및 정리할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대단원	너네들의 암기	목록임!!!!
I. 현대 생활과 응용 윤리	(1) 윤리학의 구분 (2) 다양한 윤리학 이론	
II. 생명·성·가족 윤리	(3) 죽음관 (4) 가족 관계(부부-부자-형제자매)	유가
III. 과학기술·환경·정보 윤리	(5) 동양 자연관 vs. 서양 자연관 (6) 환경윤리-인간, 동물, 생명, 생태	
IV. 사회윤리와 직업윤리	(7) 개인윤리와 사회윤리(니부어) (8) 분배 정의(노직, 롤스, 공리주의, 마르크스, 아리스토텔레스) (9) 사형제도 (10) 인권 개념의 변화 (11) 시민불복종 (12) 직업관(일부만 : 순자의 예, 플라톤, 칼뱅, 마르크스)	
V. 문화와 윤리	(13) 다문화에 대한 태도	
VI. 평화와 윤리	(14) 민족주의 vs. 세계시민주의 (15) 해외원조 (16) 전쟁론(알처)과 평화론(칸트, 갈통)	
출제??	I	(17) 도덕 추론 과정(3단 논법)
	VI	(18) 국제관계이론(현실주의, 이상주의)
	V	(19) 문명충돌론vs.문명공존론

열공+즐공=대박!!!!



←수족지의(手足之義)?!